

노무현의 어제를 보면
노무현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당 52세)
- 1975년 제 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 1988년 국회 5공비리 청문회 활동
- 1990년 3당합당 거부
- 1991년 통합민주당 대변인
- 1993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1997년 SBS 뉴스대행진 진행자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현)
-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지구당 위원장(현)

달라서 좋다



기호 **2** 소신 · 능력 · 정직
노무현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 66조에 의거한 것임. 제작자: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노무현
선거사무소: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지구당 (전화:736-6262,팩스:736-6282) 인쇄:성전기획, 서울 중구 목정동 29-32 (전화:275-5561)



소위 ‘정치판’에는 서툴지만 인간으로 보면 큼니다.

다들 맞불기를 피하는 5공실세, 허삼수씨에게 무모하게 도전한 인권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승리하여 국회의원 뺏지를 단 인권변호사가 있습니다.

정치와 아내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서슴없이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하는 촌놈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눈 질끈 감으면 김영삼정권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3당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바보같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엄마보다 예쁜 여자와 사귀어라. 아버지는 엄마가 심지가 굳은 것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하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간큰 아버지가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총재:김대중)으로 부산지역구에 나가면 뻔히 패할 줄 알면서도
동서화합을 위해 의연하게 패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패하고도 국민의 인기는 더 높아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노사정대타협을 위해 김대중대통령 대신 전국의 노동조합을 돌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있습니다.

종로 출마를 결정하자 상대당의 야당 명예총재, 중진들이 맞불기를 피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무현!

그는 과연 바보같은 정치인일까요?

한국의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인물일까요?

자신은 단점을 먼저 내세우지만



고시 준비 시절을 생각하면,
고졸 학력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영광에 앞서, 울산 '한국비료' 공사
공사장 합숙소에 밀려 있었던 밥값 2천원을 떼먹은 일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갚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변호사 시절을 생각하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 변론하고
학생사건, 노동사건을 전담하여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일보다도
초보 변호사 시절, 한 아주머니의 수임료 6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규정을 내세워 받아 써버린 일이 아직도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생각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5공실세를 이겨서 금뱃지를 달았으나
실리를 버리고 3당합당을 거부하고 최연소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일보다도
5공청문회에서 '전두환이 아직도 너희들 상전이나?' 하며 의원들을 향해
고함쳤던 일, 분에 못이겨 국회의원 명패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일 등이
너무 젊은 혈기만 앞세웠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본인은 더 나은 인물이 있다고

주위사람은 그의 장점을 말합니다.

'노무현,김정길 이 두사람은 우리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할 인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97년 11월 21일, 당시 대통령후보)

'이 정글의 정치판에 노무현같은 정치인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있다고 봐도 좋다'
홍사덕(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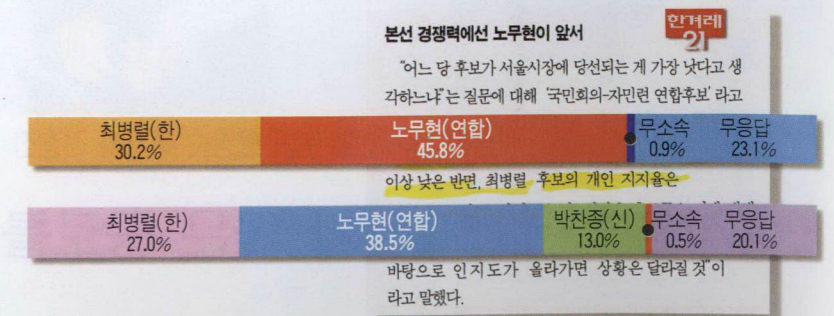
'노무현씨가 정치계에서 성공한다면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나는 그를 위해 일하는 사무장이 되어도 좋다.'
김원기(노사정위원장)

'노무현씨가 출연하는 정치무대가 있다면
나는 그 무대의 관객이 되어도, 배우가 되어도 정말 신날 것 같다.
노무현씨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최종원(연극인)



14대 대선 후 영국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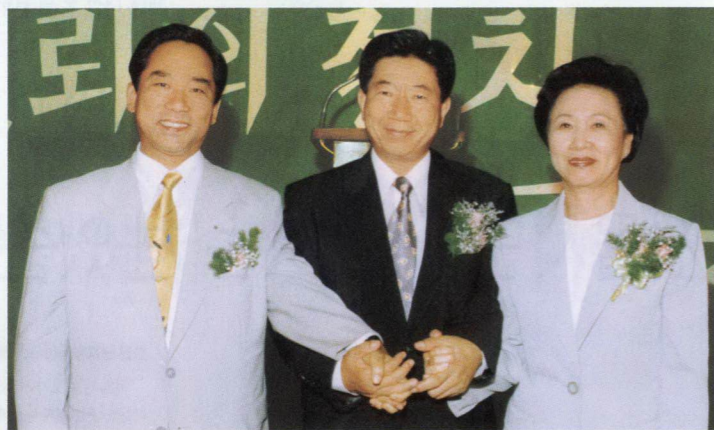
고사했지만 서울시민의 지지는 높았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공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약속은 '종로사랑'입니다.

1.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통반장에게도 고개 숙여 돕겠습니다.
구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장관에게도, 시장에게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2. 종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전통문화는 물론 현대문화의 중심지로 꾸겠습니다.
3. 젊은 정신을 살려 구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앙무대에서 속 시원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찬 안기부장 부인 윤장순 여사와 정흥진 구청장과 함께 ...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자기 돈으로는 룬싸롱도 한번 못 가보고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굳게 믿으며 살다가 예고 없이 잘려 버린 이 나라의 가장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남편이 기죽을까봐, 혹시 엉뚱한 마음 먹을까봐 발자국 소리도 크게 못내고 속만 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4절까지 열심히 외운 죄박에 없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피아노를 못 치게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싼 임대료에 권리금까지 주고 시작한 장사, IMF에 한달 이익이 월세 줄 돈도 못되어 문닫으려니 전세금조차 빠지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힘들게 비워뒀던 받아놓은 어음은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직원들을 자르려니 그 가족이 눈앞에 어른거려 몽클 몽클 극단적인 생각만 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당합당을 거부하고 원칙있는 바보가 될 때의 소신,
동서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을 초월한 선거운동을 할 때의 그 역사인식으로 돌아가는 일 이상의 그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종로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인으로서 가족의 이익보다는 종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 이상의 그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버리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998년 7월 종로구 명륜동 22번지에서

노익환